

<건축의 괴리감> - '일상에서 건축으로'

건축학도인 나는 일반인들과 건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면,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곤 한다. 이는 상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건축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느낀 괴리감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찰해 보았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들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핸드폰, 더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필수적인 '어플'에 건축을 녹여냈다. 그 어플이 지금부터 우리가 소개할 '건축로드'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행을 갔을 때, 맛집에 들리고 예쁜 풍경을 보고 아주 잠시 건축을 관람한 뒤 숙소에 돌아오기 바쁘다. 그 찰나에 건축의 역사나 재료, 상징, 작가의 의도 따위는 고려 될 수 없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는 힐링, 맛집 탐방을 위함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언어,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건축이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건축을 감상하는 동안은 잠시나마 그 시대에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나를 그 시대에 더욱 더 선명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줄 타임머신이 필요하다. '건축로드'는 당신에게 그런 타임머신이 되어 줄 것이다.

'건축로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로드뷰의 입체성, 사전의 전문성 등 기존의 장점들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여행 할 수 있는 '지역 별 프로그램'이나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들만 일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가 별 프로그램' 혹은 건축의 재료나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구성했다. 이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건축을 제시하고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시국에 맞추어 3D 로드뷰를 통해 집에서도 건축물을 감상하고 오히려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도 디테일한 탐색이 가능하며, 날씨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다.

건축의 이름이나 해당 위치의 건축물이 검색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건축의 사진, 이름, 재료, 역사, 건축연도, 건축가, 특징, 양식, 공법 등 세밀한 정보를 구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 할 수 있게 했으며, 정보의 깊이에 단계를 두어 건축학도에서 일반인, 나아가 아동들의 수준에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알림이 울리는 위치 시스템을 통해, 길을 가다 문득 발견한 건축에 대한 호기심을 즉시 해결하여 '일상에서 건축으로' 향하게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고자 했을 때, 번거로운 검색 과정과 방대하고 반복되어 정돈되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에 시간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건축로드'는 최대 3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의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표시되고 검색창과 함께 사진을 통한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늘의 추천 건축물', '오늘의 추천 건축가' 등 추천 시스템을 메인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 하고자 했다. 메뉴 페이지에는 앞서 소개한 테마 별 프로그램을 나열하여 선택적인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완수 했을 때, 스탬프 부여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검색창에 건축물을 검색했을 때는 정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정보의 깊이를 조절하는 난이도 선택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다.



<건물에 대한 호기심을 강조한 어플리케이션 '건축로드'>



메인 페이지



테마 페이지



검색 페이지



스탬프 페이지

- ▶ 현재 위치의 주변에 있는 건축물 알림 표시
- ▶ 사진을 통한 검색 기능
- ▶ 오늘의 추천 건축가, 건축물 등 추천 시스템
- ▶ 테마 별 건축 로드 프로그램
- ▶ 검색 결과 구분, 전체 보기, 난이도 조절, 좋아요 표시 기능
- ▶ 건축로드의 스탬프 부여 기능

이렇듯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만을 집약한 어플이 '건축로드'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건축이 인증샷의 뒷배경으로만 소비되는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 건축은 건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들의 일상인 건축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랐다. 우리는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의 태도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감상'의 태도로 건축에 임해야 한다. 고로 그 변화에 일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바이다.